

# 다시 되새기는 숭고한 기증의 가치

이중섭미술관 개관 20주년  
숭고한 기증II '마음의 끈'전  
신옥진 외 4명 기증 작품  
8월 28일까지 기획전시실서



김한 작 '꿈꾸는 솔밭포구' (김기주 기증)

기증을 계기로 한 달 더 발돋움할 수 있었던 이중섭미술관. 개관 20주년을 맞은 미술관이 특별전으로 기증의 가치와 의미를 조명하기 위한 '숭고한 기증' 전시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다.

미술관은 '기증'을 통해 발전해 온 미술관의 역사를 조명하고자 올 연말까지 4부로 나눠 기증전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열린 '가나아트센터 이호재 기증 작품전'에 이은 두 번째 '숭고한 기증'전은 지난 15일 개막해 관람객을 맞고 있는 '마음의 끈'전이다. 전시명 '마음의 끈'은 "기증자들의 사랑이 이중섭미술관을 통해 만민에게 전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선 부산 공간화랑 신

옥진 대표 등 5명의 기증자와 기증 작품이 소개된다. 기획전시실에 전시된 작품은 장육진, 송영방, 김한, 박고석, 박수근, 고영우 화가의 작품 총 36점이다.

고 송영방 화백은 이중섭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가지고 2004년 이중섭의 초상화 작품 두 점을 직접 그려 기증했다. 안현일 화백은 2013년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에

서 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 서귀포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자신의 전시 작품 한 점을 기증했다.

서귀포의 사업가 문화중재는 2013년 그동안 자신이 수집해 온 작품 중 서귀포 출신 고영우 화백의 작품 한 점을 기증했으며, 2014년 김한미술관 김기주 관장은 아버지 김한 화백이 1995년 이중섭미술상을 수상했던 인연을 소중하게 여

겨 아버지 작품 2점을 기증했다.

공간화랑 신옥진 대표는 2014년 이중섭미술관을 다녀간 후 허종배 사진작가가 촬영한 이중섭 화백의 원본 사진과 '이중섭과 서귀포'가 함께 언급되는 김춘수의 시, 화가 장육진의 '돼지' 등 제주도 관련 작품 30점을 기증했다.

전시 관람은 현장 발권을 통해 가능하며,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하계기간(7-9월) 동안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관람할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의미 있는 기증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작품의 공공성을 위한 사회적 환원이라는 점에서 큰 가치를 갖는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기증 문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중섭미술관 소장품 중 기증품은 현재 이중섭 원화 24점을 포함해 총 243점이 해당한다. 미술관은 9-10월과 11-12월 두 차례 기증전을 더 준비하고 있다.

오른지기자 eioh@ihalla.com

# 서귀포시 새연교 야간콘서트 '토프님'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매주 토 야간관광 이벤트



지난해 열린 새연교 콘서트 모습. 서귀포시청 제공

서귀포시가 시민에게는 열대야의 피서지로, 관광객에게는 잊지 못할 야간관광 이벤트로 매주 토요일 새연교에서 '토프님'을 연다.

시는 오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 새연교 일원에서 '2022 새연교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12년 차를 맞은 새연교 콘서트는 시가 주관하는 대표 야간관광 이벤트로써 매년 다양한 테마로 개최해 시민과 관광객의 호응도가 높은 이벤트로 자리매김했다.

시는 올해 '서귀포의 토요일, 뜨거움이 넘치다(토프님)'의 주제로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행사를 진행한다. 콘서트에서는 '홍조밴드', '무드트리', '주넨드' 등 도내에서 활동하는 여러 장르의 예술인들이 다채로운 공연과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이와 함께 시는 새연교 콘서트 무대공연을 희망하는 참가자들을 위한 열린 무대(오픈마이크)를 마련한다.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와 협업한 '전문 사진작가와 함께하는 야간 스냅촬영 이벤트' 등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부대행사로 공연장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서귀포의 대표 야경명소인 새연교에서 펼쳐지는 새연교 콘서트가 그동안 축적된 뜨거운 에너지를 발산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제주 배경 촬영 작품 잇단 흥행 눈길

최근 제주를 배경으로 촬영한 드라마·영화 작품들이 연이어 흥행에 성공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글로벌 OTT(넷플릭스) 순위권에 진입한 제주 촬영작품이 '우리들의 블루스'부터 '기상청 사람들' '킹덤:아신전' 등 총 9편에 달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진흥원은 특히 올 상반기 제주에서 촬영을 진행한 ENA채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첫회 시청률 0.9%에서 최근 회차 9.1%까지 대폭 상승하며 인기몰이 중

이며, 지난 10일 기준 넷플릭스 TV쇼 부문 전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팬데믹 이후 극장가 부활을 견인한 제주 로케이션 작품 '마녀 Part 2. The Other One'는 278만명의 관객을 불러 모았다.

진흥원은 이처럼 작품들이 계속해서 제주를 찾는 이유는 푸른 숲과 바다 등을 품은 천혜의 자연환경은 물론 제주의 역사부터 언어, 생활·문화 등을 소재로 하는 작품이거나 이국적인 이미지를 화면에 담기 위해서 등이라고 설명했다. 오른지기자

# 김목인 여름밤 콘서트

이달 마지막 주 수요일인 오는 27일 오후 7시 30분 탐라도서관 야외 잔디마당에서 문화가 있는 날 '김목인 여름밤 콘서트'가 열린다.

작곡가이자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목인은 번역과 집필

활동도 꾸준히 해오고 있는 음악가다. 그가 최근 발표한 신규 4집 앨범 '저장된 풍경'은 팬데믹으로 멈춰진 시기를 지나온 과정과 심리적 풍경을 음악으로 담아냈다.

탐라도서관은 "마음속에 저마다의 풍경을 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콘서트 초대장을 띄웠다.

# '온택트' 이후의 제주조각

제주조각가협회 33회 정기전  
21일까지 문예회관 1전시실

"우리는 현재 '위드(with) 코로나'를 이야기하고 있다. 'with 코로나'는 코로나와의 공존을 의미하지만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보면 온라인을 통한 연결인 '온택트(Ontact)' 이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조각가협회가 "온택트 이후의 제주조각에 대한 고민들을 통해 현재, 우리가, 당면한 시대적 사고를 바탕으로 제주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관객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제33회 정기전을 열고 있다.

지난 16일 제주 문예회관 제1전

시실에서 개막한 이번 정기전에는 37명의 작가가 참여해 출품한 조각, 설치, 영상 등 47점의 작품이 전시됐다.

'온택트 이후의 제주조각'이라는 제목을 단 이번 정기전의 주제는 'With 코로나 시대를 배경으로 제주조각이 관객과 연결되는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전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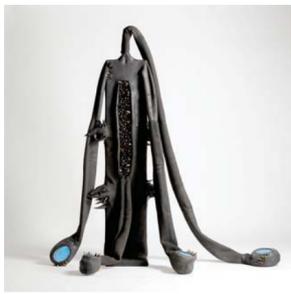
협회는 "'온택트 이후의 제주조각'은 with 코로나에 대한 동시대적 사고들을 바탕으로 제주조각의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소개한다. "중요한 지점은 조각 매체의 물질·비물질적 확장과 그것을 관객과 연결시키는 다양한 방식에 있다"며 "실제 작품과 QR코드를 통한 온라인 이미지로 전환된 작품의 공존방식, 조각 매체에서 출발해



송창훈 작 '50년지기-이별'

다양한 매체의 활용으로 확장되는 표현의 다변화와 가상의 공간성을 중심으로 표현되는 비물질 조각들을 통해 작품과 관객들 간의 다양한 연결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덧붙인다.

전시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진다. 21일 오후 2시에 '제주조각의 역사'를 주제로 강시권 작가의 도슨트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 오른지기자



진주아 작 'black Sarasvati'

## 취임 축 당선

CONGRATULATIONS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 (제주시 중부)**



**고 의 속**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지부장**



**고 성 찬**  
KS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본 종친회 이사

명예로운 취임과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영국 고득중 파조님의 유덕이 함께 하여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고씨영곡공파종친회**  
회장 고점유의 종친 일동

## 당 축 당선

CONGRATULATIONS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고 성 찬**  
(前 한라산악회 회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라산악회**  
회장 홍성철 외 회원 일동

## 당 축 당선

CONGRATULATIONS

**제13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시지회장**



**이 동 화**  
(분회 회장)

제13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시지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중앙고 축구후원회**  
회원 일동